

# 東大新聞

금주일언

말을 삼가는 것, 뜻을 지키는 것, 몸으로 선하지 않는 걸 행하지 않는 것, 이같은 세 가지 행(行)을 뒤오면 부처님은 도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다.

법구경·도행품 398절

1998년(불기 2542년) 11월 16일(월요일) 제 1259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발행인 송석규 /편집인 겸 주간 정태섭 /부주간 심규박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최정식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02)260-3491~2 FAX(02)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0561)770-2057

‘동국대학교 90년사’ 발행 개교 이후 90년간 역사 기록서



본교 개교 이후 90년간의 역사를 수록한 '동국대학교 90년사'가 역사 기록서로는 '동국 70년사' 이후 20여년 만에 발행됐다. 개교 9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이번 90년사는 93년 11월 교사편찬위원회(위원장=목정배·불교학)가 구성되어 올해 10월까지 5년여간의 작업 끝에 완성된 것이다. 이 책은 1권과 2권 총2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1권은 본교 90년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고, 2권은 70년사 이후 20년간의 주요 연혁을 포함한 기구 시설의 변화, 교수의 연구활동 등 다양한 자료가 수록돼 있다.

교수연구업적 3집 발간

19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전체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모은 교수연구업적 제3집이 발간됐다. 교수들의 논문발표, 단행본 출간, 보고서 제출, 특허출원, 창작업적 등이 단과대별, 학과별, 교수별로 수록된 이 업적집은 지난 91년부터 격년제로 출간되고 있다. 송석규(철학) 총장은 발간사에서 "연구업적집은 연구정보를 교환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학내·외적으로 우리 대학의 연구성과를 알리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준(국문학)교수 비교문화국제회의 회장 추대

김태준(국문학) 교수가 한·중·일 학자들로 구성된 동아시아 비교문화 국제회의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한국학자로는 처음 회장으로 추대된 김교수는 내년 본교에서 '동아시아의 불교 문화'를 주제로 회의를 주재한다.

이성우(방사선학)교수 자기공명의과학회장 당선

지난 7일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에서 열린 '98대한 자기공명의과학회'에서 본교 의과대학 이성우(방사선학) 교수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자기공명의과학회는 '자기공명학'을 전공한 교수와 학자들의 모임인 '대한자기공명 의학회'와 '자기공명 연구회' 두 단체가 96년에 결합한 단체로서 자기공명에 관한 의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학생 참여속 생동하는 총학 건설”

### 서울캠 총학 후보 김호중·성나현조 1차유세 ... 학생 무관심 여전

‘시대전환! 가치창조! 새천년을 움직이는 청년의 합성’이란 구호를 외치며 서울캠 제31대 총학생회 후보로 출마한 김호중(불교4)·성나현(응생3)조의 1차 유세가 지난 12일 오후 1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치러졌다. 이 자리에서 김호중 후보자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새천년에는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한 강대국의 횡포가 진행될 것”이라며 “통일 등을 통해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청년의 임무”라고 외치며 “학우들과 더불어 생동하는 총학생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성나현 부임후보자는 “학우들 삶에 녹아나지 않는 학생회는 ‘암대’ 학생회가 된다”며 “앞으로 학생회 사업을 자주적 바탕으로 학우들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세에는 30여명의 학생들만이 참석해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총학생회 다음 유세는 오는 18일 오후 5시에 동국관 앞에서 치러지며 마지막 유세는 오는 23일 도서관 앞에서 오후 1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 교수회, 총장직선제 강행

### 신용태·홍치유·조희영·신현제 교수 입후보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가 지난 11일부터 13일 까지 3일간 실시한 총장후보추천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서울캠에서 신용태(일문학) 교수, 홍치유(물리학) 교수, 조희영(경영학) 교수 등 3명이 경주캠에서 신현제(영문학) 교수 등 이상 총 4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오늘(16일)과 내일(17일) 이틀간 후보자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후보자를 공고하며, 이날부터 유세를 시작해 다음달 9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수 직선제가 실시됨에 따라 그간 교수들만의 총장선출을 반대해 왔던 직원, 학생들과의 갈등 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직원노동조합(위원장=백경선) 측은 “교수회측의 결정이 합리적 대안이 아니며 재단 낙점에 비해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또, “선거 긴장상태를 지속시켜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교수회 활동설명회 지난 10일 경주캠서 개최

### 총장낙점 이후 활동 보고 ... 서울캠 내일(17일) 열려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는 지난 10일 경주캠에서 총장연임결정이후 벌어진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서울캠의 경우 내일(17일) 명진관(A103)에서 설명회를 갖고 향후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할 일일 전망이다.

“교수들이 정의를 위해 성원해 달라”고 피력했다. 설명회 이후 백상탑 앞에서 “현 송총장과 총동창회 소속 이 사자들은 사퇴하라”는 결의문을 낭독한 후 농성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경주캠 2면

이에 앞서 서울캠·경주캠 교수회 특별 자문위원회(위원장=김홍철·생명자원경제학)도 지난 12일 이번 문제로 인한 학내구성원간의 갈등양상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98 민중대회 ... 생존권 시수, 재벌해체, IMF 반대 위한 98 민중대회가 지난 8일 한강둔치에서 노동자, 빈민, 학생 등 6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관련기사 4면 남대철 기자

## “구체적 목표 갖고 적극적으로 취업대책, 채용방법 습득기회로 삼아야”

취업난이 날로 격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교 취업과(과장=김병수)나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기식·물리4 이하 졸업준위) 등에서 마련한 취업관련 행사가 오히려 예년보다 취업예정자들의 참여가 부족해 학생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취업과는 전자이력서를 제작, 내일(17일) 1천여개의 기업체에 발송할 예정인데 이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약 한달간 늦어진 것이며 “교수, 제자 1인 취업·동문회사 후배 1인 채용운동”을 지난달 12일부터 펼치고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불과 4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설명회에 대한 반응도 예년과 다르다. 지난 9월 30일에 열린 외국인기업체 설명회에는 60~70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예년에 1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다. 이번 학기 동안 6번 정도 기업설명회가 열렸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사정은 졸업준위도 다르지 않다.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취업강연회를 중심으로 취업주간을 벌였지만 취업에 열을 올려야 하는 학생들은 냉담하기만 했다. 졸업준위의 김기식 위원장은 “취업위원의 행사를 펼쳤기 때문에 호응이 적었다”며 “예년보다 많은 학

생들이 취업보다 고시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교 1천9백여명의 졸업예정자 중 순수취업희망자는 1천3백여명이었다. 올해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취업을 비관적으로 여기는 학생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 순수취업희망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취업과 김혁배계장은 “경제난 때문에 하반기 기업들의 채용계획이 없음을 알고있는 학생들이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들의 소극적 태도를 걱정했고, 김병호 선생은 “취업희망자 중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어 아쉽다”며 학생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했다.

물론 현재 학교측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취업대책은 획기적이라거나 취업난이라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채용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고 취업에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경상대 4학년 한 학생의 말처럼 취업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보다 넓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당장 설명회가 무슨 도움이 되었느냐는 생각보다는 그 곳에서 취업을 위한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겠다. 김미경 기자

## 브리핑

###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

정성본(불교문화대 불교학부 교수)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 티끌처럼 떠도는 지구의 한 곳에서 영겁(泳劫)의 한 순간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의 참된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없으면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사실 사물을 인식하는 자각의 주체인 자신이 없을 때 존재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오로지 자신의 인식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萬法唯識)’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우주공간이나 객관적인 물질 등에 의한 합리적인 이해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지각을 통한 주관적인 체험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세계의 자기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 속의 세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천상(天上)에서나 천하(天下)에서나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일체의 우주와 공간이 없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인연의 법칙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은 이 세계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며 의미없는 것이 되고 만다. 때문에 우리들은 각자 절대 유일한 존재인 자신의 참된 가치를 잘 알고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여 창조적인 삶을 통한 보살도의 정신으로 자신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원대한 원력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시대를 바꾸는 것은 인간이 만든 생산물이 아니라 바로 힘있는 인간이며 우리를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자신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절대 유일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지각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참된 위치를 발견하고 자각하여야 한다. 자신의 참된 삶을 창조적으로 꾸어갈 자아를 발견해야 자신이 일체의 경계에 머물러거나 상대적인 가치관에 떨어지지 않고 절대 유일한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자신있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부모의 인연을 빌리고 신비스러운 우주 자연의 생명과 많은 인연을 가차(假借)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연가합(因緣假合)인 것이다.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이 사람을 못쓰게 만든다. 빌린 물건을 사용할수록 이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몸과 마음도 머리도 사용하면 할수록 건강하고 단련되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교수동정

- ▲전호련(불교학)·김용표(불교학)=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원효학 학술발표회에서 논문발표.
- ▲홍기삼(국문학)=지난 12일 대구 동화사에서 '불교문화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

대신문사 기획광고 - 작은 권리 찾기

## “선거 불감증을 타파합시다”



서울캠 투표일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주캠 투표일 26일

### 유세일정

**서울캠**  
중앙(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유세  
12일 도서관 오후 1시, 18일 동국관 오후 5시  
23일 도서관 오후 1시  
단과대 학생회 유세  
사과대 19일 오후 4시  
경상대 17일 오후 1시, 23일 오후 4시  
생자대 19일 낮 12시  
사범대 17일 오후 3시 30분  
23일 오후 3시 30분  
예술대 18일 오후 4시  
야 총 17일 오후 7시, 23일 오후 7시

**경주캠**  
중앙(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유세  
총학 미정  
총여학생회 18일 원효관 중정 오후2시  
단과대 학생회 유세  
인문대 19일 24일 원효관

대신문사

### 동대 학술상·문학상을 모집합니다

**제 36회 동대 학술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본상 및 기차 사회과학상·본상 및 기차 자연과학상·본상 및 기차  
△응모요령 : 3개 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 199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 인문과학상·본상50만원 기차25만원 사회과학상·본상50만원 기차25만원 자연과학상·본상50만원 기차25만원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직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 1998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 13회 동대 문학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 시부문·본상 및 장려상 소설부문·본상 및 장려상 평론부문·본상 및 장려상  
△응모요령 : 시부문·3편 내외 소설부문·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응모자격 :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 199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 시부문·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직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 1998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수습교사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임용대기자로서의 정식 권리 보장하라”

## 객관적 평가기준 없어...교장의 전횡우려

수습교사제를 둘러싸고 각 대학 사법대와 교대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교 사법대학생회(회장=이선진·수교4)는 거리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오는 18일까지 펼칠 계획을 하고 있다.

수습교사제를 확보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난 7일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수습교사제의 전면 실시가 임박되기에 이르렀다. 임용과 수습을 통과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교사를 퇴출시키는 수습교사제는 임용대기자로서 정식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서울교대와 인천교대가 지난 13일에 교육부 항의 방문을, 부산교대와 진주교대는 시

한부 파업을 하는 등 전국 사법대학 및 교대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수습교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료적인 학교 현장에서 수습교사제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교권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교장의 지시에 순응하는 정도에 따라 임용이 되고 안 되는' 비민주적인 횡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수습교사제가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습교사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교원의 역할 및 구조가 수직적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99년 전면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공청회조차 한 번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예고 때, '백년대계' 여야 할 우리교육의 질이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양성기관에서 길러진 교사를 놓고 정말 양질의 교사를 추려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법대학생회장 이선진군은 "사법대의 경우 일반대학의 교육과정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실정이며, 단 한 달간만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등 '부실 교육 양성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한다.

이에 전국사법대학 및 교대는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양성기관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원의 질 향상을 담보하는 '교사수련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합평가를 받은 교사를 지도 교사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펼침으로써 안정된 지위와 신분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단체의 반발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관,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에 전국 사법대학 및 교대는 '수습교사제 철폐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본교 역시 오는 18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기점으로 교육부의 수습교사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 대각전 2차 봉불식 내일(17일) 열려

대각전 2차 원불 봉불식이 내일(17일) 오전 10시반부터 90주년 기념문화관 대각전 법당에서 개최된다. 대각전 개원 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1부 봉불식 행사, 2부 점심공양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해 1천8백98명의 원불봉안자 외에 3백50여명의 불교신자들이 추가로 원불봉안을 희망했으며 수익금은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조성된다.

### 컴퓨터 경진대회 시상식 향현천(물리3)군 금상 수혜

'제2회 컴퓨터 경진대회' 시상식 시상식이 지난 5일 컴퓨터 교육원 원장실에서 치러졌다.

컴퓨터 교육원(원장=홍영식·컴퓨터공학) 주최로 지난달 31일 열린 이번 대회에는 75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대회 결과, 금상에 황현천(물리3)군이 입상하는 등 은상 3명, 동상 5명, 장려상 10명이 선정됐다.

### 전자공학과 전자전시회

전자공학과에서 주최하는 제20회 전자전시회가 원흥관 6층 기초전자 실험실에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치러진다.

# 총학, 지난 12일 이사장실 점거 해제

## 선운본과 연대해 학생대책위 발족...학내문제 공동대응키로

제30대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4)는 지난 12일 오복원 이사장실 점거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이사장실 점거를 해제했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22일 재단의 현 총장직 연임결정이 있는 다음날인 23일 이에 대한 반대외사를 밝히고 오복원 이사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사장실을 점거해 21일동안 농성을 해왔다.

한편, 총학생회는 이날(12일) 제31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임후보한

김호중·성나현조 선거운동본부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 회장 임후보자 선거운동본부와 연대해 학생대책위를 꾸려 발족식을 갖고 앞으로 학내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 유혜동(화학 86졸) 박사 청암 신진화학자상 수혜

본교 이과대 화학과 총동창회 청암화학회(위원장=이중화)는 지

난 13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제1회 청암 신진화학자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로는 유혜동(화학 86졸)박사가 선정됐으며 유박사는 현재 캐나다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청암 신진화학자상은 이과대 초대 학장을 역임한 고(故) 민태원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교육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 제15대 동아리연합회 당선자를 만나 "동아리연합회 위상 찾겠다"



제 15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정·부회장으로 박종근(영문아3), 김경원(신방2)조가 당선됐다. 총 1백 80명의 대의원 중 1백 26명의 참가해 70.0%의 투표율과 90.5%의 지지율로 당선된 그들을 만나 당선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당선소감을.  
=처음 동아리연합회의 일을 시작할때만 해도 잘해보겠다는 포부와 열정이 있었다. 하지만, 학우대중들과의 괴리와 의사소통의 한계를 느꼈고 이를 극복해야겠다는 취지가 임후보하게 되었다. 63개의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선거유세를 치르면서 동연은 동아리들이 함께 꾸려나가는 것이라는걸 배웠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제 14대 동연을 평가한다면.  
=출발할때부터 집행국의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힘겹게 시작한 14대 동연이었다. 집행력이 약한 상태에서 한학기

를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것 같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야 했기에 학우들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부족했고 그만큼 대중성과 멀어졌다.

-제 15대 동연의 사업계획은.  
=우선 동아리연합회의 자리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동연내의 분과체제를 확립해 보다 조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위상을 살려 동연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관의 복지에 귀 기울이고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아리간의 연대를 강화할 생각이 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인간을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오늘날 대학이 답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요구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포부를 밝힌다면.  
=동연은 동아리들의 힘을 하나로 집결해야 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이런 동연의 위상이 집행국의 조직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동아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동연은 일정한 틀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제 15대 동연은 일상을 깨는 보다 자유롭고 친숙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은진 기자



최근 학내 문제가 워낙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어 동아리에 대한 지원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데... 결국 항의방문이 있고 나서야 지원금이 지급됐다. 13일 오후 학생과에서 동나리대표자들과 선상규 학생부처장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유철주 기자

# 회전무대

## 비교체험 극과 극

“비교체험이 있어요” 같은 동아리에서도 강의환경이 극과 극이란다. 이는 강의 시간에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쉽게 잊고 수 있다. M건물 교수님 : 답조? 참문 열고 합니다. J건물 교수님 : 출다구요? 배운 의 열기로 이겁시다! 이에 두건물을 오가며 수업을 받는 학생 왈, “바라바라 바라바! 난방시설 비교체험 극과 극입니다요”

## 침몰! 조선일보

“...사상검증의 달인, 조선일보는 끝내 침몰하는가? 그동안 사상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진보적 지식인을 사정시켜왔던 조선일보가 최근의 ‘최장집속이’는 실패하는 듯. 그러나 재기의 칼을 갈고 있는 그들은 이미 결사항전을 결의하고 있다. 이에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한 학생 한마디 “좋은 아침 열받는 신문이 이리도 유명한 조선일보?”

## 부적절한 관계

“...풍국대와 조계종은 과연 어떤 관계? 본교는 총장 날치기 문제로 시끄럽고, 조계종은 월주 스님의 3선문제로 난리인데. 두 곳의 공통점은 각각 권력의 맛을 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조계사는 소림사 출신 스님이 유독 많다는 것이라는데. 이에 이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한 학생 한마디 “풍국대와 총무원의 관계가 바로 부적절한 관계입니까!!”

## 임 기다리는 마음

“...“언제오려나?” 재단의 일방적인 총장 재임에 대해 학내 4주체들은 재단과 총장측에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그러나 사건이 터진지 3주가 되었음에도 원인을 제공한 재단과 총장측은 해결을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임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의 정상화가 절실한 요즈음 이러한 모습은 답답한 노릇이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함흥으로 가신 총장과 이사장님, 모시로 갈 차시는 누구?”

### 동국참사참봉사단 '중구관내' 불우이웃돕기 후원자 명단

(지속적인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김은희 권지연 권혁자 김홍모 신하균 김경재 김경희 김명숙 김진광 김계현 김규환 김대영 김두재 김갑중 김병수 김병호 김병훈 김병준 김보환 김상애 김승국 김영수 김승우 김영철 김용욱 김정환 김인홍 김종백 김종철 김재선 김진영 김진석 김청옥 김종욱 김혁배 김석진 박세훈 김철환 김혜영 김혜중 노장오 박종진 박순희 유종기 박현숙 김중호 류종운 리영자 문옥래 민병목 박경준 박근서 박광호 박노경 백수현 박동수 박태오 박순성 박인항 박정규 박창근 심상진 박준상 박성호 박종민 박준영 박춘엽 박혁상 박현태 박환오 박훈선 백경선 백우석 변재덕 변민우 서문길 선상규 손 성 윤건택 손상길 서정옥 송종수 이동은 송일호 신일식 신재호 신해철 안민수 안준욱 신기훈 안중철 이광구 이광휘 장금숙 안중석 연기연 오광진 오수인 오종호 오원혜 유광호 유석천 오정수 유승룡 윤동규 유지나 윤의선 윤장욱 윤주영 윤희영 이강현 이근배 이성호 이경식 이근재 이성철 이종구 이범수 이영식 이정섭 이은희 이정순 이종대 이영규 이종태 이진구 이창진 이창학 조용길 이혜은 임조경 임혜순 임종욱 장동미 장영수 전영일 정옥자 정경훈 정은화 조미경 조순식 조성구 차준환 최국진 조 압 최봉수 최정숙 조형오 최대석 최인숙 최철환 최광재 현병주 이종석 황순조 한문우 한용수 한명희 정병조 홍석강 홍성조 황영수 함영란 황용호 최창선 하정은 황의돈 한정란 김태원 권영인 정현수 김병식 이의수 이승영 김인재 성용길 정인성 정재형 이영민 정태섭 김대건 임 식 채환국 정정의 손재현 김종민 이상만 김희규 송석규 유병길 박현식 김갑수 유광진 김한식 노환주 변기홍 김은길 백경남 김인재 권기중 박상관 류병선 이덕택 이정숙 이유용 고재선 김영태 전미영 유현림 김미경 김장수

### 송석구 총장은 사퇴하여 이 난국을 풀어야 한다

지난 10월 22일 재단이 총장 연임결정을 내린 이래로 우리 동국대학은 갈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학생들이 즉각 이사장실을 점거했었다는 하만, 얼마 전에는 집회에 이어 급기야 총장실 마저 점거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교수들을 또한 연일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지러운 동국의 현실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제 참담함에 앞서 심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동국대학의 찬란한 90년 전통은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될 것이며, 동국 구성원간의 갈등 또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동료 교수들에 비해 나이도 더 들고 동국의 캠퍼스에 몸담아 온지도 오래된 우리에게에 동국 90년의 역사가 더욱 소중하고 안타깝게 여겨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국가족 모두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평정을 되찾아 이번 소용돌이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을 직시하고, 대의를 위하여 욕심을 버리고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특별 자문위원회의 뜻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1. 송석구 총장은 교수회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한 채 재단에 의한 재선임을 야기한 책임을 통감하고 참회하는 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공적을 90년 동국사에 남기고 학교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임을 자각하고 명예롭게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2. 아울러 입시입부와 교수초빙 등 산적한 학사행정의 원만한 수행의무를 지니고 있는 송총장은 교수들에 대한 각종 회유와 협박을 즉각 중지하고, 다가오는 총장선거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3. 재단의 전격적인 총장 재임결정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나고 있음을 재단은 간과해서 안될 것이며, 동국 구성원들이 한결같이 거세게 이에 반발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결자해지의 지혜로 관계에 따른 총장 선출방식을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1998년 11월 12일  
서울캠·경주캠 교수회 특별 자문위원회

### 교수회의 5차 중간보고서 중 일부 내용에 대한 부장단 교수들의 입장

1998년 11월 9일자 핸디 오피스의 전자우편과 유인물에 게재된 교수회의 주요 활동 5차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총장이 중간보직 교수들과 밤새워 새벽까지 고급 호텔에서 향연을 벌이면서 작금의 학교사태에 대한 회유 작업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중간보직교수라고 교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저희 8명의 교수들은 1998년 11월 11일 교수회를 직접방문하여 교수회장인 유덕기 교수에게 상기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 하였습니다.

첫째 교수회에서 지칭하는 중간보직교수란 의미는 특수대학원 교학부장 및 연구교류처 부장직등을 맡고 있는 중견교수를 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어떤 교수들이 중간보직교수들이며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다면 중간보직교수들은 금일 방문 교수들이 전부라고 생각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둘째 교수회가 의미하는 중간보직교수에 대한 개념의 광범 여부를 떠나 교내에서는 이미 많은 동료 교수들이 금일 방문 교수들을 중간보직교수의 범주에 넣고 생각하여 총장과 이들 교수들이 학자적 양식이 없는 행위를 한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셋째 만약 교수회에서 중간보직교수가 금일 방문교수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총장과 이들 교수들의 호명할현 행위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총장과 부장급 교수(중간보직교수)들은 전일 민병천 총장때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1회의 모임을 학교 근처의 음식점에서 가지면서 학교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 제시/수렴등을 해왔는데 혹시 이 모임을 총장과 중간보직교수들과의 호명할현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송석구 총장과 중간보직교수들은 11월 정례 모임을 11월 4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학교 근처 한식당에서 가지면서 특수대

학원 입학생 모집 계획과 최고 고위자 과정 활성화 방안등에 대해 밀도있는 의견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상기 질의에 대하여 교수회장인 유덕기 교수는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교수회가 지칭한 중간 보직교수란 의미는 금일 방문 교수들 즉, 현재 특수대학원 교학부와 연구교류처의 실무부서를 맡고 있는 부장급 교수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다는 광의적인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했으며 광의의 의미로 고려 될 수 있는 중간보직교수들에 대하여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명할현에 관한 불미스러운 행위의 주체가 금일 방문교수들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추후 교수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 6차 교수회 중간보고서 공개적으로 이를 해명 및 사과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저희 중간보직교수들은 교수회장의 상기 답변이 성실히 수행될 것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교수회가 금일 방문교수 이외의 중간보직교수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한 명단 제시(비공개라도 무방)가 없었던 11월 9일자 “총장과 보직교수가 포함된 호텔에서의 향연”건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총장과 중간보직교수들에 대한 명예실추는 추후 공개적인 교수회의 사과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교내에서 중간보직교수라고 일반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들은 금일 방문한 교수들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향후 교수회의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정보의 유포를 통한 학교기관이나 개별 교수들에 대한 명예실추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수회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교류처 연구부장 및 학술 교류부장, 대학원 교학부장, 불교대학원 교학부장, 경영대학원 교학부장, 행정대학원 교학부장, 산업기술환경대학원 교학부장,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장 일동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논란

##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기구로 태어나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라는 개념이 유엔에서 사용된지는 꽤 오래되었으나 각 국가에서 국가인권기구가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 인권관련 국제규약이 제정된 1970년대 이후이다. 우리의 경우 식민지배와 군사정권의 오랜 세월동안 권력의 찬탈과 찬탈한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탄압당하여 왔으며,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구는 인권탄압의 선봉에 섰고, 국민을 인권탄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법부 역시 인권보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한걸음 전진하려는 지금 인권위원회는 그 동인의 우리 인권사 및 그 제도적 한계에 대한 반성의 토대 아래에서 우리의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는 실질적인 인권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인권사에 비추어 정부에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권법시안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와같이 설립된 인권위원회가 우리의 인권문제해결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가 앞선다.

법무부 시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인권위를 법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견 법인으로 하면 독립성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법제도아래에서의 법인은 인권위의 독립성보장에 근본적인 장애가 된다. 우선 법인인 이상 이사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위원에 대한 옥상옥이 된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독립성보장에 더욱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인 이상 인권위에 대한 감독관청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경우 법무부가 감독관청이 되어 인권위원회의 예산, 활동 등에 대하여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시안에도 법무부가 인권위에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무려 13개나 된다.

국가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현실에서 인권위는 국가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위를 대통령 소속(이 경우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이 아닌 국가의 원수)으로 하되 위원회의 구성·재정·활동 등에서 개별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위원회의 인적 독립성 및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명방식에 투명성, 민주적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추천제도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임명절차과정

에서 청문절차를 거침으로써 여론에 의하여 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위원회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 관련 정보, 관련자료, 관련장소 등에 제한없는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법무부안 중 조사의 실효성을 위한 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나 과태료는 부과의 주체가 법무부장관이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태료 부과만으로 수사기관, 군부대, 수용시설의 조사를 강제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위원회에 조사거부시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강제적인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임의조사가 가능하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난 경우 그 피해자를 구제하고, 앞으로 이를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침해행위의 중지, 침해된 권리의 회복, 장애 침해방지를 위한 예방조치강구, 손해배상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조치에 대하여서는 구속력이 있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하고 강제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경우 인권위가



차지훈 변호사

제2의 안기부, 제2의 검찰로서 새로운 권력기구화 되며, 이러한 경우 검찰, 안기부 등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민을 상대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아니라 주로 국가기구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구제를 하여 주는 기구이다. 인권위에 이와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현재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인권위의 출범에 긴장한다는 것이고, 이는 인권위가 국가기구의 인권침해에 대한 파수꾼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징표가 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도 얼마전 강조하였듯이 제대로 된 인권위가 설립된다면 인권위가 기존 관련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짜맞추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의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위상과 권한을 갖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설

### 학생회,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난 12일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단위의 선거유세가 도서관에서 열렸고, 단과대의 유세를 또한 투표일 전까지 이어진다.

이에 계속된 문제제기 및 반성점이지만 올해 선거과정에서도 '선거무관심'은 초반부터 그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올 3월에 치러진 제30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독출마인 제31대 총학생회는 물론, 전체 12개 단과대 중 5개 단과만이 후보자가 출마했다. 더불어, 과 학생회도 그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다수 학생들의 선거무관심은 과를 기반으로 둔 공동체의식의 약화와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하나의 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 파급효과는 크다.

모두 단독출마인 까닭에 상대방에 대한 견제 및 정책제시에 있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유권자인 학생들은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어, 또한 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했을 때 내년도 사업계획의 어려움과 정상적인 이월이 이뤄지지 않는 학생

회 내부문제 등 이후 과급되는 제반 현상들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려울 듯 하다.

몇 년째, 침체된 학생회를 다시 건설하지는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들과의 공감대를 회복하고, 운동일련의 모습에서 탈피자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도는 이미 예전의 선배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정확한 정책과약에 기인한 공약제시와 활동을 통해서만 진정한 '학생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덧붙여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노력은 별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학생회를 의면하고 비난한 학생들쪽에서도 그에 상응한 자세가 필요하다. 왜 학생회를 의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학생회는 학생들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자명한 이치를 토대로 '자신의 권리이며 의무'로써 바라봐야 한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지식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 일반 사회보다 낮은 투표율과 참여는 대학의 부끄러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줌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과제

문화적인 역량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문화우위의 시대에 세계의 문화를 수용하여 문화의 세기를 주도한다는 취지에서 60일간 개장을 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지난 10일 막을 내렸다.

당초 예상 관람객인 3백만을 웃도는 수치로만 따진다면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행사장을 관람했던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대부분이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행사장 내의 지나친 상술과 여러 가지 부대시설의 미비까지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본교에서도 엑스포 행사 기간 중 참여자 마당을 주관하여 지역대학으로서 이미지 제고에 신경을 쓰기도 했으나,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거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는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이 처음의 시도이며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으로 다음 2000년 그 이후 2년마다 계속될 행사라는 것이다. 또한, 주최측인 경상북도와 경주시 관계자를 비롯한 본교 교수들을 위주로 한 심포지엄 자리가 오는 24일 경주문화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이 토론회를 계기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까지 도출되기를 바란다.

세계화와 동시에 지방화의 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세계적 보편성 확보라는 가치를 내걸고 열렸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지방행사, 국내행사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비롯한 문화적인 개념이 바탕이 된 다양한 행사와 기획을 지금부터 다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교에서도 이 행사를 매개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양심수 군문제

## 양군모 문제 대책 마련 시급

### 정치수배해제·민주화운동보상도 병행돼야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남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무를 당연히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문치용·96년 서총련 사무처장 이하 양군모)'의 회원들이다.

김영삼 정권시절 학생운동과 관련해 2년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결성을 준비해온 이들은 3·13사면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회원수가 5백여명에 이르르고 있다. 양군모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국민의회의 당사 출근투쟁을 벌였으며, PC통신과 각 대학내 대자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선전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대전에 있는 병무청에 집단적으로 집회영장을 반납한 후 10월 23일부터 6명의 회원이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군모의 구성원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

분 학교에서 학사제적 또는 졸업한 상태로 평균연령이 25세에서 27세에 이르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의 군생활까지 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사회진출이 어려운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병역법에는 '2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병역의 의무를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긴 수배생활과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수감생활을 마쳤기 때문에 실질 수감기간이 2년을 훨씬 넘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봉(96년 조선대 조국통일위원장) 양군모 집행위원장은 "양군모 회원들은 이미 과거의 정치적 환경속에서 탄압을 받았던 학생들로서 바른소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간 사회와 격리되었다"고 밝힌 뒤, "현 정부가 과거 청산과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양군모의 문제가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그 동안 정부가 양심수들의 군문제를 해결해준 전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군사독재시절이던 88년 8월 정부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징집을 면제해 주었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방위 소집대상이 되도록 했다. 여기에 6개월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당 징집 반대운동을 벌인 결과, 정부는 대상자 4백83명 가운데 4백47명을 방위소집으로 바꿔 주었다.

또한 김영삼 정권 초기인 지난 94년도 이러한 내용으로 5백여명의 학생들에게 선처를 해주었다. 그 동안 양군모를 비롯한 정치수배해제의 문제는 정권출발 초

기의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당·정에서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노력을 해왔던 학생들은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는 다시 한번 양군모 문제를 비롯한 많은 민주화세력에 대해서 투명하고도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동약로

98민중대회

#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

##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생존권 보장 촉구

'생존권사수, 재벌해체, IMF반대'를 위한 98민중대회가 지난 8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6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던 노동자 대회를 민중대회로 치러겠다는 점에서 예년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모으기에 충분했다. 본대회에 앞서 '정리하고 지지·노동시간 단축 쟁취·산별노조 건설·재벌해체를 위한 98민중대회 노동자 전야제'는 7일 오후 7시부터 보라매 공원에서 시작됐다. 사전문화행사에 이어진 본마당에서 김귀식 전교조 위원장은 "10년간 투쟁해온 결실을 이제서야 보게 됐다"며 기쁨을 표시했다.

8일 오전부터 모이기 시작한 각 부분별 대오는 본대회에 앞서 각각 사전집회를 진행했다. 청년학생들은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반 민중적 대학구조조정 저지, 98민중대회 사수를 위한 청년학생결의대회'를 택시노련은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노동자 총파업 출정식' 등을 가졌다.

오후 3시경 "세상을 움직이며 역사를 일구어내는 민중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라는 내용을 담은 전국연합 상임의장인 이창복씨의 대회사를 필두로 각 부분 대표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마련한 10개안에 대한 공동결의문이 낭독되면서 대회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 자리에 모인 민중들은 결의문을 통하여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IMF협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로 인한 희생을 민중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공명정대한 경제정책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본대회가 끝난 후에 참가자들은 정경련 회관까지 가두행진을 하였으며, 오후 6시 부터는 민중대회의 정리집회가 진행됐다. 또한 대오 중 일부는 정리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영등포역까지 거리행진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날 참가한 시민과 학생들이 본대회가 끝난 후 정경련회관 앞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민중민주단체간의 연대활동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즉, 노동자·빈민·학생 등이 모두 모여 개별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 요구안을 함있게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민중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12월에 있을 2차 민중대회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속>



### 선거

11일 오후 4시 진흥관 수위실 1층 로비 선거투표현장에서는 법정대 2팀, 졸업준비위원회, 야간강좌총학생회 각각 1팀에 학부선거까지 포함해 모두 5팀이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었다. 각 단대와 자치기구, 학부측의 선거관리위원회 20여명, 각 후보자측들의 도우미 150여명까지 합세해 투표장안은 발다닐틈이 없을 정도이다. 건물 건너편에는 선거운동원들이 나서서 "투표하셨어요?", "몇 학년이세요, 학생증이 없더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까 가시는 길에 투표하고 가세요"라며 지나가는 학생들마다 억지로 투표를 강요한다. "저, 조금전에 했는데요", "수업이 늦어서요", "신분증이 없어서요"라며 무관심하게 외면하는 학생들도 있다.

"몇 학년이세요, 학생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선관위원들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다 "저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등록돼 있지 않은 이상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며 그냥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넘어가 버린다. 신입생인 그에게 처음 주어지는 투표권이 선관위의 착오로 박탈당하는 순간이다.

5시 30분경 자연대 2층 투표장소. "얼마나 됐냐", "겨우 반이 넘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기다려 보는데 좋겠다"며 선관위측은 선거인명부를 펼치며 하나하나 다시 확인한다. 이날 99학년도 일부 학생회 선거결과를 50%를 겨우 넘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곳도 있었지만, 큰 탈없이 진행됐다. 물론 학우들의 무관심은 학생회 위상과 기반이 흔들리기에 충분하다. 또한 선관위측도 50% 투표율에만 치중한 나머지 부실한 관리를 한 것이 사실이다.

98년도 한해동안 동분서주하면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외판길을 걸어야만 했던 학생회 간부들은 노골적이다.

대중성이 결여된 학생회의 위상을 재확립할 절대절명의 순간임을 이번 선거가 깨닫게 해준 계기였다고... 정희정 기자

### 민중대회 평가

## 강력한 민중연대 포문 연 최대 집회

### 기초 생존권 투쟁 도화선 역할 할 듯

지난 8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는 노동자, 농민, 빈민, 종교계, 학계, 학생 등 6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존권사수, 재벌해체, IMF반대를 위한 98민중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민중의 힘으로 IMF를 극복하자'라는 뜻을 한데 모은 자리로 이후 진행될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 투쟁에 있어 하나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IMF체제이후 민중들의 기본 생존권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은 더욱 어려워진 사회여건속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자신의 졸업을 두려워하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경우,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시작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병행근로제 등으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현재 수천명에 이르는 노숙자들이 대부분 실직자임을 감안할 때,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농민 또한 노동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보람이 아니라 빚더미뿐이다'라는 대화자의 구호처럼 농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농자재 값과 재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 그리고 제자리에 멈춰있는 정부의 지원대책은 1년동안 정성들여 기른 농산물을 스스로 갈아엎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빈민들은 기본 주거권마저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도원동의 철거민들은 벌써 몇 달째 용산구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과 수원시 권선 4지구 주민들은 정부의 공권력 과용억압에 의해 거리로 내몰린 상황이다.

이러한 민중들의 기본권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문제는 종교계, 학계를 비롯해서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거의 취업포기상태에 이르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생들의 미취업 문제는 사상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대학가에서는 대학생 실업문제가 학생운동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민중대회는 민중생존권 문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투쟁에 대해 공유와 연대를 모색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홍근수(한림교회)목사는 정경련회관 앞에서 열린 정리집회에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준다던 국민의 정부는 어디로 갔느냐"며 "지금이라도 이 난국을 타개할 자신이 없으면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를 여기 모인 바로 우리 민중들에게 비워주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매년 열리는 노동자대회와 시기를 같이 해 열린 이번 민중대회는 12월에 열린 2차 민중대회를 기약하면서 막을 내렸지만, 이후 진행될 민중들의 투쟁을 강력하게 이끌 초석임에 틀림없다.

유철주 기자

### 전철연 부의장 고천만씨를 만나

##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겠다”

지난 8일 개최된 '생존권사수, 재벌해체, IMF반대를 위한 98민중대회'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부의장 고천만씨를 만나 전철연의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전철연의 민중대회 참가 의의는.

=우선 전철연이 전국빈민연합의 일원으로 참가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다. 개별조직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함께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작성했다. 민중대회를 통해 빈민연대의 기조인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는 자리'를 확인하게 되어 뜻깊은 하루였다.

-지금까지 철거 상황은.

=지난 4월 강제 철거된 도원동을 비롯하여 청량리 전농동 구역 주민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공권력에 의해 거리로 내몰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천시 권선 4지구와 의왕시 4지구에서도 벌어졌다.

-이에 대한 전철연의 대응책과 요구안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국가발전상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권 조차 보장 할 수 없다면 다수의 이익을 발미로 하는 쪽거나 다름 없다. 이러한 고민의 결실이 바로 '한국 강제철거 감시단'이다. 구체적 활동 실적은 해당동 강제 철거를 조사하여 정부와 건설업체에 '가수용 업체 협약 파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단체를 결성하는데 힘을 써 나갈 것이다. 또한 순환식 개발을 지지하고 공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할 것을 정부에 요구 할 것이다.

-향후 전철연의 계획은.

=전철연은 빈민연합과 같은 단체 조직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부당한 강제 철거에 대한 대국민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속>

### 민중대회에서 만난사람들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윤금순(전국 여성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

새정권이 농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농정개혁이 부족했고 농민의 생존권 유지를 위한 구체적 해결책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농가부채를 경감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지원된 영농자금도 또한 문제이다.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산지의 값과 판매현장에서의 농산물 값의 차이가 너무 크다. 앞으로 농어민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생존문제”

오치승(주)한양 직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나마 우리 회사는 달한 편인데도 올해 희망퇴직으로 나간 사람만 7백50명이다.

앞으로 사업부서를 더 정리한다고 하는데 2백30명 정도가 추가로 감원될 예정이다.

이제 애들도 커가고 돈들어 갈 때는 많이지는데 어떻게 사나 막막하지만 하다. 울퉁불퉁 보너스도 2백50% 반납했는데 회사 측에선 1백% 더 삭감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다가 정말 먹고 살 일이 절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 취재나눔

#### 동심

0...지난 8일 한강 둔지에서 열린 민중대회는 어린 민중들도 함축하는 자리였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노동자와 농민들이 가족단위로 민중대회에 참가해 함께 투쟁의 구호를 외쳤다는 것.

맑은 눈망울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생존권 사수'를 따라 외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는 이들을 안쓰럽게 만들었다고. 이에 지나가던 한 시민 왈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철거민에게 잠자리를, 어린이에게 동심을 줄 수 있는 세상

은 언제쯤 오나!"

#### 계란과 재벌

0...계란으로 재벌치기(?) 민중대회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정리집회 후에는 계란을 미리 준비해간 사람들이 정경련회관을 향해 화풀이라도 하듯 마구 던졌다고.

그러나 재벌은 복지부동이고, 오히려 정경련 관계자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재벌은 이날 폭발한 민중들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에 이날 집회에 참석했던 한 학생 한미더 "재벌을 보면 개혁이 안보여요!!!"



규탄... 조선일보의 안보실업주의는 끝이 없다. 김영삼 정부시절의 환상, 김정남씨에 이어 김대중 정부들어 최창집 교수에 대한 사심경중직업을 벌이고 있는 조선일보. '언론의 자유 인가?' '언론의 폭력 인가?' 국민들은 더이상 참지 못한다. 11일 오후 1시부터 조선일보사 앞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유철주 기자

- 기획 - 실업 시리즈
1. 실업의 원인과 사회적 문제
  2. 대학생실업의 의미와 대책
  3. 대학생실업해결을 위해 뛰는 사람들
  4. 실업 타개책 전망

## 실업대책 거시적 안목으로 재구성돼야

### 일자리 창출·교육기회 확대·사회개혁 시급한 과제

최근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98년 2/4분기의 전체실업률은 6.9%로써 전체 근로가능인구 2천1백58만 중 1백48만5천명이 실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문제인 것은 실업률이 98년 1/4분기에 5.7%에서 2/4분기에 6.9%로 거의 1.2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9월말의 은행의 구조조정작업과 함께 시작된 대기업의 구조조정작업과 중소기업들의 본격화됨에 따라 실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3/4분기에 거의 실업률이 8%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정부는 각 부처별로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업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실직자로 산업단지 기동봉사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행자부는 공공근로사업에 실직노동력을 활용하고 있고, 노동부는 실직자들에 대한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실업자 대책이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에 의문이 있다. 한국사회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서 지나야 할 경제적 사회적 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점들을 IMF가 한국에 요구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과거의 근로자평생직업제가 계약제로 바뀌었고, 월급제가 연봉제로 바뀌었으며, 개인의 능력과 조직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각자의 직위나 보수가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기업은 직원을 일단 채용하면 평생근로를 보장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런 제도적 변화에 따라 한국경제가 침체되고 경

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직원들을 방출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능력과 실직이며,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근로자는 앞으로 어떤 직업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실업대책은 이런 세계적인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에서 해야 할 실업대책들을 보면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각종의 방안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많이 위해서는 한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투자가 창업이 이루어지면 공장이나 사무실이 생기고 이것을 가동하기 위해 인력이 요청된다. 따라서 국내의 투자가 창업을 장려하고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분야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규제나 법규를 가지고서 투자를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각종의 교육기회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직업교육들은 주로 미래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재는 실직자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최고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인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업대책들은 단기적이고 임시미봉책인 성격을 지녔다. 이런 실업대책들은 정부예산을 엄청나게 소요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생산성도 산출해 내지 못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정부예산의 효율화와 한국인력들의 재구성 및 실직인력의 새로운 재창출을 위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실업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생활태도의 변혁이 요청된다. 과거처럼 정부나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리라는 막연한 의존적 생각으로는 IMF하의 상황속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 94년에는 국제화 세계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방안으로 95년 OECD에 가입하여 한국사회 경제의 세계화 국제화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OECD가입후 불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의 경제사회적 취약점이 드러나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물론 혹자들은 IMF사태가 단순히 외환보유고 부족이나 금융위기 관리의 미비라는 점으로 축소하기도 하나, 그 문제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보면 그동안 누적되었던 사회 각 분야의 모순과 부조리와 비합리성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세계속에서 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경쟁력있는 체제로 정비되기 위해 각 분야별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과거처럼 눈치껏 제 욕심만 행하는 Free Rider(무임승차자)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공정한 규칙하에 모든 구성원들이 오직 실력과 노력에 의해 소정의 과실을 얻을 수 있게 될 때 한국사회와 경제는 내실있는 운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노동의 미학·자신의 맘을 통해서만이 소담한 결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생활속에 확고하게 정착해야 할 것이다.

박병식  
법정대 행정학과 교수  
본 기획은 이번 순서를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동약에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중앙기구·단과대 모두 단독으로 치러져 분위기가 다소 썰렁(?)할 전망이다. 총학·총대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 보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어떨까. 편집자

# 학생들의 희망으로 자리잡겠다

제31대 총학생회장 후보 김호중·성나현 조

## “학생회는 학우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시대전환! 가치창조! 새천년을 움직이는 청년의 함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번 제31대 총학생회장·부 회장으로 입후보한 김호중(불교4)·성나현(응생3) 조. 그들을 만나 출마 동기와 각오에 대해 들어보았다.

**-출마동기는.**  
=정: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학생운동이 다시 학생들의 희망으로 자리잡을 수 없다. 총학생

회 집행부 활동을 하면서 올해 가졌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로 총학생회장을 결의했다.

부:3년 동안 학생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배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또, 내가 옳다고 말한 것에 대해 끝까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한 책임의식 속에서 대표자를 결의하게 됐다.

**-제30대 총학생회 사업을 평가한다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우들에 근거한 사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또, 공약으로 학생운동의 혁신을 약속했지만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실천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대동제 등에서 보여줬듯이 대중사업에 있어 오랜만에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고 또 2학기 학원자주화 투쟁에서 총투표 등을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

**-주요정책이나 공약사항은.**  
=그간 학생회가 선거에서 내건 공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모습은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을 약속할 것이며 더불어 이상적인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제시할 것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95년 제27대 총

학생회에서 동국발전의 지점을 제안했던 범동국 구교운동을 이어받아 2기 범동국 구교운동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재단정상화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 대학내 진보적인 학풍 확립, 동국인의 날 부활 등을 추진할 것이다.

**-학생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학생회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생회부터 시작되는 공간체계를 다시 세워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학생회와 괴리된 듯한 느낌을 줄이고 학생회는 학우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백지 대자보나 컴퓨터 통신의 활성화 등의 매체 문제를 어떠한 것을 소통의 주제로 이야기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비밀직화 총장선출 방식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가.**

=총장이라고 하는 지위와 역할은 동국대를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합의 할 수 있는 방법을 거쳐 선출되어야 한다.

**-진정한 동국발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육개혁 우수대학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단적인 모습이며 그렇다면 진정한 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

**-학생회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업을 통해 대학생활에서의 학생들의 고민을 풀어내는 것과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자주적으로 고민하게 유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학교와 사회의 이상적 모습구현을 위해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대철 기자

신현찬(연명4) 중선위원을 만나

## 학생회 침체·무관심 속 선거분위기 관심과 참여 유도해 학생회 건설해야



는 것이 현실이다.

**-99학년도 학생회 선거 시황에 있어 지난해와 방법상 비점점과 그 이유는.**

=중앙기구와 단과대 선거의 투표를 24일부터 26일까지 일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년의 선거로 인한 학내의 혼란스런 분위기를 자제하고, 학생들이 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사업기조를 평가한다면.**

=현재 사회과학대를 제외하고는 선거공약이 전체적으로 모호하다.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회나 학내 상황 속에서 기준이 되는 선을 명확히 긋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합의를 거쳐 보다 신중하게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려는 것 같다.

**-투표마감 시간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이 투표를 강요하는 모습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점점 떨어지는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러한 모습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회를 건설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학생회의 활동이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이 정도의 학내 환경과 사회분위기는 그 동안 학생회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선배들의 힘이 크다. 또, 학생회는 학생 개개인의 의사소통 통로이고 학생 자신의 권리는 학생회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학생회를 건설해야 한다. 남대철 기자

제31대 총대의장 후보 최진범 군

## “투명·공정을 원칙으로 총대 위상 확립할 터”



제31대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의장 후보로 98학년도 문과대 학생회장을 역임한 최진범(영문4)군이 단독 출마했다. ‘동약의 240 대의원 이어! 혼란과 불신을 딛고 '98 성상, 민족동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라는 가치를 내건 그에게 그가 생각하는 혼란과 불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동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들어보았다.

**-출마동기는.**  
=총대가 학내 전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약 내에서 대의원체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족하다. 각 학과 대표들은 자신이 대의원임을 인식하지 못한채, 자신을 과학생회 운영위원으로만 여기고만 있는 것이다. 학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총대와 대의원들의 위상을 알려내고,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각인시켜주는 것이라 생각해 출마하게됐다.

**-제30대 총대의원회를 평가한다면.**  
=그동안 총대는 ‘빠대만 있는 기구’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제30대 총대는 단과대 대의원들과 잦은 교류를 통해 총대의 역할과 위상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개인적으로 이를 높게 평가한다. 제31대의 사업은 제30대가 벌였던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크게 37기 공약을 제시했다. 첫 번째 ‘학생회의 체계정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회칙은 체계에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는 것으로 ‘자기 존립 근거’라 할 수 있겠다. 제30대 총대에서 추진한 총학생회칙 개정과정을

이어 학부학생회 및 전공학생회, 학년학생회를 인정하는 회칙을 제정하겠다. 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1·2학년과 3·4학년 간 분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4개 학년이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학생회 일꾼들에게 회칙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고, 의사소통구조를 단일하고 명쾌하게 정립해 학생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두 번째 공약 ‘대의원회의 위상정립’은.**

=출마동기에서도 밝혔듯 총대의 최소단위인 학과대표들은 학생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중요한 성격을 지녔지만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총대의 모든 업무

를 기층 대의원들과 공유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대의원들의 교양작업을 통해 총대가 감시·견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총대의원회의 고유업무’에 대한 부분은.**

=총대는 입법감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고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회칙제정·개정, 예산분배, 감사, 선거 등 총대의 고유업무를 실행하겠다. 김미경 기자

**-이번 선거에 많은 단위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학생회 일꾼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학생회 활동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좌·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대중성을 담보한 학생회 활동을 결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현재 선거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한 중선위의 노력은.**

=학생회와 마찬가지로 중선위도 일꾼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에는 공보집이나 플래카드 등의 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홍보 차원에 머물고 있

최순열 교수가 권하는 책

에밀



루소의 대표작으로 사람들에게 친숙한 고전이다.

최교수는 "규범적 가치를 존중하며 우리에게 문명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과연 이 문명사회가 축복인가하는 문제제기를 던지는 책"이라고 소개한다. 이 책은 우리가 인정하는 가치와 질서, 규범 등이 항상 본질적 가치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이해시키고 인간의 본질과 본성을 부정하고 혐오할 것만이 아니라 순수한 자신의 내재적 가치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홍신문화사, 정가7천원.

사람아 아, 사람아!

중국현대 휴머니즘 문화의 기수 다 이 호우잉의 원작을 신영복씨가 번역한 책으로 작가 자신의 통찰했던 체험 속에서 견져낸 11명의 인물을 통해 인간 본연의 존재와 믿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참다운 애정을 전하고 있다. 최교수는 이 책에서 대학인들이 '이분법적 가치를 넘어서는 마음의 겸허함'을 배우길 바란다고 전한다.

다이 호우잉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열정을 겸허한 자기완성의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유틸 소설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

다섯수레, 정가6천5백원.

달의 지평선 1.2

96년 이상문화상, 98년 현대문화상 수상자로 친숙한 윤대녕의 최근작이다. 80년대를 살아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가치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경향'에 대해 고민을 던져주는 작품이다.

최교수는 "연대 행위 속에 소홀히 돼왔던 개인의 삶에 대해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윤대녕 소설의 백미로 생각이 녹아나는 심도 깊은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해냄, 정가7천 5백원.



서울캠 총학 후보자에게 듣는 99년 대학문화

우리의 과제 '소통공간찾기'

대학문화 창달위해 심도있는 고민 필요

대학문화 만들기의 주조적인 학생회의 선거가 이뤄지는 이때 김호중(불교4) 성나현(응용생물3) 31대 총학생회 단독후보자(이하 후보자)를 만나 98 학생회 문화사업 평가와 99년 대학문화 지향점 및 실행방안을 들어보았다.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학생회와 대학 문화 모두가 정체성과 특수성을 잃어간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현재는 대학 내·외부의 정세변화로 대학문화가 존재의 위기에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는 "대학에 상업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되면서 대학문화가 깨졌고 이러한 부분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따라서 공동체 문화를 복원시키고 이 문화 속에서 개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학생회사업을 통해 해야 할 일이다"라며 원인과 대안을 밝혔다. 그러나 '대학내 공동체 문화 정립'이라는 대안은 전대 많은 총학생회에서 제시했던 부분이라는 지적이 있어 최근 98년 총학생회 문화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았다.

"올해 총학생회의 사업들은 대학문화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당위에서 시작할 관련의 실험활동이었다. 이제는 학내에서 학생들이 하고자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실행과제에서 지적되는 바는 단편적으로 99년 단과대 선거 중 '8개 단과대 후보자 미등록'에서 보여지는 학생회 운영주체 재생산의 문제와 이로 인한 학생들과 학생회의 소통의 문제이다. 학생회부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학생회와 학생들간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 후보자는 "본교는 대자보 문화가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며 타 대학에서 대안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통신문화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본교에서 소통공간을 찾는 방법은 활동하는 학생회 일꾼들이 발로 뛰는 수 밖에 없다"며 직접적인 소통공간은 아직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뷰를 마치고 후보자는 31대 학생회를 꾸러내기위해 관성과 원칙에 얽매어 학생회가 대학문화의 생성, 발전, 해결의 하나뿐인 기구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적인 시대상을 반영한 대학문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80년대의 모순점을 비판하고 저항의 몸짓을 펼치는 것에 국한했던 학생회활동이 학원자주와 학생복지, 대학문화 창달에까지 활동범위를 넓힌 지금, 비대해진 학생회의 역량강화와 예비 학생회장들의 심도있는 고민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진 기자

서태양(관광경영학)교수와 찾아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새 천년의 미소, "21세기 문화중심에 서다"

준비미흡 과제로 남아 ... 우리문화 발굴 주력해야

동행취재를 흔쾌히 수락해준 관광경영학부 서태양 교수는 행사장 입구에서 '문화엑스포는 'Culture Exposition'의 약자로 성숙된 인류의 문화유산인 21세기 문명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자리이다"며 현대 과학문명의 성과물들을 놓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산업박람회 형식과 다른 문화엑스포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치러진 이번 행사는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관람객의 수가 늘어 300만에 이르렀다고 한다.

신라시대의 유물로 알려진 수막새의 미소는 우리나라 전통의 은근함을 전하고 있었다. 서교수는 수막새로 대표되는 '새 천년의 미소'라는 주제에 대해 "다가오는 21세기 문명을 경주문화엑스포 행사를 통해 준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행사장은 크게 주제관과, 세계문명관, 세계풍물광장, 백결공연장, 우정관내 마련된 북한관으로 꾸며져 있었다. 처음으로 찾은 곳은 이번 경주문화엑스포의 '새 천

년의 미소'를 다룬 주제관이였다. 입구에는 '전승의 마당'이 꾸며져 있었는데 한가운데에 12지상이 커다란 원을 그리고 있어 유구한 동양문화를 상징하는 듯 했다.

주제관 내부는 전시주제관과 영상주제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전시주제관에는 높이 20미터 넓이 2백여평 정도의 넓은 공간에 세계적 비디오아티스트로 알려진 백남준씨의 '백팔번뇌' 등 세계 유수 아티스트들이 제작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있었다. 이들은 행사의 주제인 '새천년의 미소'를 평면적인 회화 미술형태가 아닌 3차적 멀티미디어 효과를 가미해 나타내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입체감과 생동감으로 다가왔다.

한편 영상주제관에서는 멀티미디어와 환상적인 레이저쇼, 디지털 음향효과를 통해 살아있는 입체공간이 펼쳐지기도 했다.

세계문명관은 황화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로 대표되는 세계 4대문명을 한자리에 모아전시하고 있었다. 각 문화권

양희은과 일리(一理)

아침 텔레비전에 양희은이 나왔다. 27년 전에 냈던 빗바랜 음반 자켓을 들고 옛날을 이야기했다. 김민기와와 만남, 통기타 시대의 애환, 아침이슬이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불리우던 때의 감격 등을 방송에서 풀어냈다.

양희은은 아직도 활동을 하는 가수이지만 시종 과거만을 이야기하도록 방송은 요구했다. 아마 팬들도 아직까지 양희은이 '아침이슬'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하는 지도 모른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수에게 옛날만을 강요하고 향수만을 자극하게 하는 우리들. 이것이 우리 문화의 현실이다.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과거를 향수로 즐기려할 뿐이며 모르는 이들은 과거를 아예 외면해 버린다. 그래서 양희은은 언제나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으로 알려질 따름이다.

방송도 그녀의 새로운 음반엔 인색하고 잘 나갔던 과거를 회고해 보라고만 청한다. 과거가 지금의 양희은에게 무엇이었던지를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세대의 단절이나 세대차이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주는 폐해에 대해선 말을 아낀다. 아직까지 60, 70년대 음반을 팔고 늙은 리얼리즘을 연출해내는 가수가 무대를 장악하는 외국의 문화관을 들여다 보라.

달하나 천강에

그들은 신세대 음악과 과거의 음악을 동시에 판다. 족보를 곱씹으며 음악듣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역사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다.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을 얘기하면서 말이다. 빙크로 스비, 토니 베넷, 엘비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다. 오직 새로움에만 관심을 보이는 우리와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새로움에 대한 관심이 책잡힐 이유는 없다. 다만 그 관심이 역사의 단절을 전제로 했다면 그건 문제되어 마땅하다.

단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의 원인인지도 모른다. 닭장차에 실려가던 자신의 모습, 고향을 뒤로 한 채 올라왔던 서울에서의 첫날밤, 넥타이를 매고 목소리를 높혔던 명동에서의 그날. 이 모든 것들을 향수로만 둘러버린 우리가 얻는 건 무얼까. 지나가버린 과거는 아름답다고? 천만에.

그것은 꼬깃꼬깃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같이 학습해야 할 값진 것들이다. 과거를 너무 수이 여겨버린 탓에 오늘과 같은 국난을 맞이한 것은 아닐까. 항상 새로운 것만을 부여잡고 과거를 내팽개친 탓에 오늘과 같은 질곡에서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오랜만에 아침 프로에 출연한 양희은을 보면서 떠올려 본 일리(一理)다.



원용진 신문방송학과 교수



기 힘들었다는 점과 잘 닦여지지 않은 자갈길로 인한 먼지를 관람객들은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 들어서 있는 상가에 대해 서태양 교수는 "상가의 기념품 및 음식 판매를 살펴볼 때 가격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비싼 경우가 많았고 경주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또한 행사장내 영업권 분배에 있어 대다수가 외지 상인이었음을 지적하며 "문화를 이루는 기본은 경제성인데 경주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주최측의 배

려가 미흡하지 않았나"는 문제제기를 했다.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홍보부족으로 인해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움과 나름대로 경주의 옛 문화유적과 더불어 세계의 각 문화와 유적을 들을 돌아보았다는 행사의 본 의의가 희미로 엇갈렸다.

2000년 제2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는 반민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만의 자랑스런 고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한층 더 성숙한 준비의식이 수반되길 기대해 본다.

장희정 기자

# 영상매체비평

- TV편  
MBC 21세기 위원회  
칭찬합니다!

“박정희가 온 군사독재자들을  
칭찬하는 사람이 나온다며?  
아마 제작진도 매일 가슴을  
졸이고 있을 것이다”



월요일 밤 11시, 이 늦은 시간에 문화방송에서는 이상한 제목의 개그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김국진·김용만의 21세기위원회'. 개그맨들의 위원회라. 대체 뭐 하는 위원회일까? 다수의 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우루루 물러 나와서 무대를 가득 메우고 이런저런 잡담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는 형식은 90년대의 여느 개그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물론 편성시간만큼은 특이하다고 하겠다. 그 늦은 시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는 것은 확실히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시도한 이런 편성시간의 파격 정도로는 시청자들의 별다른 호응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제법 알려진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그 까닭이 특이한 편성시간이나 특이한 제목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정은이라는 한창 잘 나가는 아나운서는 물론이고, 김국진이라는 빼어난 개그맨의 매력도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이 프로그램이 널리 회자된 것은 하나의 코너, 바로 '칭찬합니다'라는 일종의 계도성 코너 때문이다.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다. 다만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칭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뿐이다. 볼레카메라를 이용하는 '양심냉장고'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위원회'의 칭찬텔레비는 일반인의 진출한 평가를 제작진이 그저 좇아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런 문제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 의의

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둘은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그 추구하는 방식에서는 사뭇 다른 프로그램인 것이다. 칭찬을 하고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좀더 인간적인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어느날 전두환이나 노태우, 아니 박정희같은 군사독재자들을 칭찬하는 사람이 나온다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주영이나 이진희를 칭찬하는 사람이 나온다며? 조선일보의 김대중이나 조갑제를 칭찬하는 사람이 나온다며? 아마 제작진도 매일 가슴을 졸이고 있을 것이다.

홍성태  
문화과학 편집위원

# “남한 동무들 제대로 봐 주십시오”

## 북한 문화 창구 열려...남한 잣대로 곡해해선 안될터

### 영화

50년간의 단절을 넘어 드디어 북한영화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상반기 SBS에서 방영된 다큐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그 시작이었고 KBS2에서 방영된 '림격정'이 본격적인 북한영화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30분 분량이 짙은 통일부의 압력속에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반면 '림격정'은 KBS에서 방영되어 공명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흥명회의 작품성과 사실감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는 평은 북한영화의 현주소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북한영화에 대한 높은 평가와 관심속에 두편의 영화가 더 소개될 예정이다. 신상욱 감독의 '불가사리'와 현재 남북합작영화로 제작·진행중인 '장길산'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영화의 상영은 북한의 사회성과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의미하고 있어 문화교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초대전

잠깐씩 소개되는 북한 소식이나 사진을 통해서 혹은 전광대의 먼 발치에서만 보았던 금강산의 모습을 이제는 그림으로도 볼 수 있었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북한 저명 화가 초대전이 바로 그것이다. 월북 화가 11명과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 20명의 작품을 전시한 이번 행사는 북한 내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엔벨 송화미술원의 양해를 얻어 전시된 작품들은 현재 북한 화단의 동향을 짐작케 해주며 민족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풍경화나 화조화를 특유의 묘사법과 현대적 감각을 도입해서 그린 작품과 선묘와 점묘 기법을 개성있게 활용한 작품들이 소개됐다는 평이다.

###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유명한 영남대 유홍준 교수가 북한 방문을 끝내고 출간한 책.



지난 1월 12일부터 중앙일보에 연재된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의 연장선상에서 출간됐지만 신문에 실린 글들을 엮어 묶은 것은 아니다. 평양에 처음 도착했을때의 공항에서부터 대동강, 고인돌, 묘향산, 강서고분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문화유산과 정취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평양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말투 등을 유교수만의 독특하고 정감어린 말투로 잘 표현해 주고 있어 북한의 유산뿐 아니라 풍토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고, 현재 평양의 유행어나 결혼풍속도 등을 알려주는 짧은 글들이 책의 잔재미를 더해주며 보다 북한문화를 친숙하게 느끼게끔한다.

문화부

88년이었다. 당시 대학신문사 기자였던 나는 양성철 교수를 비롯한 재미교포 몇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난 느낌을 적은 '북한기행'이라는 책에 대해 서평을 쓴 일이 있었다. 예상대로 그 기사는 곧바로 파문을 일으켰다. 주간교수는 그 원고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신문을 낼 수 없다며 입에 거품을 물었고, 어떻게 일었는지 안기부원까지 출몰했다.

다행히도 문제의 서평은 신문에 실릴 수 있었다. 편집장과 나, 주간교수가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놓고 3일 밤낮을 씨름하며 내용을 수정한(아니, 긴 줄다리기에 끝에 타협한) 결과였다. 하지만 모두가 나와 같지는 않았다. 부산여대에서는 똑같은 북한기행문을 서평으로 실었다가 편집장과 필자가 구속되고 말았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전의 이야기다.

지난 9월 북한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SBS에서 방영된데 이어, 10월엔 벽초 흥명회의 원작소설을 극화한 '림격정(林巨正)'이 KBS에서 10부작으로 방영되었다. '상전벽해'란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곧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에 북한영화 '불가사리'와 '꽃피는 처녀', '물아오지 않는 밀사'를 상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춘천국제만화축제에서도 북한만화 60여편이 전시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북한의 소설이 출간되기도 하였고, 북한의 그림이 전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영화의 상영은 남한의 국민들에게 그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문화적 충격을 던질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에서는 북한 문화예술의 개방 폭을 더욱 넓힐 것이라고 한다. 이제 더이상 북한의 문화예술은 특정소수만이 볼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닌, 우리가 레코드가게에서 가요나 팝송을 선택해서 고르듯 하나의 선택권이 되었다.

사실 전 세계의 문화예술이 다 들어오는 글로벌 시대에 유독 북한의 작품만 안된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미국대중문화가 판을 치고, 일본대중문화가 수입개방되는 마당에 같은 민족인 북한의 문화예술이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신문을 보면 최근 TV에서 방영한 북한영화들의 시청률이 무척 저조했다고 한다. 본 사람들도 대부분 '유치하다', '5,60년대 영화를 보는 것같았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예상했던 일이다. 정말로 두 작품은 북한에서 7,80년대에 만들어진 '흘러간 영화'였다. 90년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시시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남한 국민들의 '의면'을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다. 지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고전영화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니 말이다. 정말 북한의 문화예술은 별볼일 없는, 경쟁력 없는, 그런 것일까?

나는 가끔씩 통일부 북한자료관에서 상영하는 북한영화를 보러간다. 처음엔 단순한 줄거리에 설익은(?) 연기, 개인을 지나치게 영웅화하는 내용들 때문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10여편 이상을 보고내서야 한가지 깨달을 수 있었다. 남한의 잣대로 북한의 문예작품을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과거 북한에 취재를 간 남한측 기자가 물어뜯음에 비강스를 어디로 가냐고 북한주민에게 물었다. 북한 주민은 "묘향산으로 비강스간다"고 했는데, 그 말이 남한에서 우스갯소리로

유행했다. 남한과 북한에서 쓰이는 비강스의 의미가 서로 다른 데도 우리는 남한의 잣대로 북한주민의 말을 재단하고 그 무식함에 비웃었던 것이다.

북한의 문예작품을 북한의 잣대로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북한의 모든 문예선정물에서 '공식'처럼 나오는 상투적인 '사상성'과 '우상화' 부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없이 '그저 넘겨버리고 나면' 그 안에 숨어 있던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가 보인다. 민족의 동질감을 확인한 것은 큰 수확이다.

이제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문화예술의 내면에 흐르는 한민족의 정서를 발견하고 공감하는 일. 그것은 어렵지 않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남한의 국민들이 처음으로 소개된 북한문화예술에 대해 보인

'냉정한 반응'은 앞으로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일깨워주었다. 또한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었다.

다행스럽게도 방영된 북한영화를 보면, 대사가 가운데 '동무' '접수했다' '일었다' 등을 제외하고 언어의 이질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무명저고리를 입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보적이거나 미 민족의 동질감을 확인한 것은 큰 수확이다.

이제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문화예술의 내면에 흐르는 한민족의 정서를 발견하고 공감하는 일. 그것은 어렵지 않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호열  
전 민족예술 편집장



### 자신의 삶은 자신의 손으로

학교안에서  
그리고... 그림전



미술동아리 그리고... 그림에서 열 두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자신만의 색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준비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46개의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학생회관 2층 연화관에서.

### 전자전시회



전자공학과는 18일부터 20일까지 원흥관 6층에서 전자전시회를 갖는다.

### 제 17회 동북시에전

서예 동아리 동북회는 서예와 묵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제 17회 동북시에전을 갖는다. 지난 18년간의 전통을 자랑하는 동북회는 국전 최고수장자를 배출할 정도의 역량으로 전시회를 개최해 왔다. 예술과 덕성이 한데 어우러진 동북시에전.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학생회관전시실에서.

### 학교밖에서

### 제 1회 판지 패러디 기사 콘테스트

패러디 풍자 문화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 저널 판지일보가 사회전반에 관련한 패러디 기사를 모집한다.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분량으로 사실에 근거를 둔 창의적인 내용을 다뤄면 된다. 응모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도서출판 자작나무 및 판지일보(http://ddanji.net)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당선자 발표는 일간지를 통해 12월 18일에 할 예정이다.

### 메아리

### 데미안

▲“새는 알에서 빠져 나오려고 몸부림친다. 그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기 시작한다. 그 신(神)의 이름은 아프라시스” 데미안의 편지로 부터 선과 악을 함께 가진 아프라시스란 신의 이름을 듣게 된 싱클레어. 그 이후 싱클레어는 자신이 아프라시스를 향해 날아가는 꿈을 꾸다. 무저항적인 채 상승되어감은 이윽고 불안감으로 변하게 되고, 그때 그는 숨을

죽이거나 토하거나 함으로써 상승과 하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안도의 숨을 내쉰다. ▲지난 12일 김대중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국가 주석은 한·중 교류 확대 및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다음 날 국내 4대 일간지에서는 이를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 중국 철도사업등 참여(조선), 금융위기 극복정보 교류(동아), 중·위안화 절하 않겠다(중앙), 한·중 21세기 협력

동반자 관계로(한겨레). 아직도 우리사회의 주류의식은 우리가 악이라 믿어왔던 공산세계와 지금까지 다르다고 규정지어왔던 한계에서 탈피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남과 북의 음악인이 평양에 모여서 제1회 윤이상 통일음악회를 열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2차로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이 한층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새로운

세계를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얼마 전 관광세칙을 적용하겠다는 북한의 태도에서도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인 듯 하다. 남한도 북한도 어느 한쪽을 받아들일(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준비가 충분이 되어 있지 않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남한과 북한. 그것은 어느 한쪽에서 선으로 규정하고, 다른 한쪽에서 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모두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모습이라는걸 언제쯤 깨닫게 될까. 싱클레어가 자신 안에서 데미안을 찾았듯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 낡아 아닌 인류가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쯤, 9시 뉴스에서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주석이 환하게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해경 편집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2603491·2/(0561)7702057·8 FAX:2791270 PC ID:dgpress

소나기

학내 성폭력



△학생회관 밤중에 여학생들, 남자화장실 이용하지 맙시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한 언어폭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여자후배에게는 야릇한 시선, 동기에게는 막말, 각성요양. △형 제발 더듬지마! 난 호모가 아니야! △여성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남성중심적 사고에선 sex문제는 해결 X. △지금 이순간, 남자로 피해자!! △왜 남학생회는 없는거야? △남잔 술만 먹으면 누대로 변한다. 본능을 좀 자제해 주기를...

△드러온 놈, 하늘이 두렵지도 않나? △여자만 피해자냐! 남자도 피해자다. △우리와 여자애들은 걱정이 없었군... △우리 선배 말이 여자가 무섭다더니. △학내 성폭력문제도 장난하냐? 완전 애들이군, 그냥 EDPS를 하지 그래! △'여성 상주시대'라고 부른다는데... △부처님 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무서울게 없다는 재떨이(예명). 그런데 그가 무서워하는 것이... 생겼다...(빠리밤)그것은 바로 여자. 왜! 그때 그 일 이후론... △재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둥 예는 X값이라는 둥 접수를 매기는 남학생들... △성폭력하는 자를 퇴학시키고, 모든 성적에서 F를 준다.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함. △나야 많다는 이유로 한 행동들(?) 또 신세대가 왜 그리 구식이나버려 하는 행동들(?). 아무리 어른이라도 No와 Yes는 분명히 우리 젊은이들이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입생 귀엽다고 한번 두번 툭툭치는 거 정말 싫~어요 △건전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상상으로 상대 이상의 웃을 빚기지 말 것! △성폭력! 아주 가까운 곳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 언어적 폭력부터 추방합니다. △정말 문제다. 교수님이 학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지? 아! 재 몸매가 어쨌다느니 하는 것도 다 성폭력이야. 너 조심해! △성에 폭력을 결합시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싶다. 진실한 성을 비하하는 문제제기는 바람직하지 않은듯 싶다. △더듬더듬... 어디를? 으악! 뭐야? 안 가르쳐 주지~

'게임방' 타인과 유대약화 새로운 놀이문화 모색필요

한동안 잠잠하던 '방' 문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등으로 이어지던 방문화는 사이버 시대에 걸맞게 '게임방'이라는 형태로 등장했다. 그러나 전의 방문화와는 조금 다른 형태이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게임방을 이용해 본 대부분이 한결같이 중독성을 보인다 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 밤을 새는 것은 예사이고, 서너번 밤을 새는 경우도 있다. 그에 따라 생활패턴이 바뀌게 되고 올바른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워진다. 또한 환청이 들리는 경우까지 생기는데 갑자기 게임내용의 사운드가 들리거나 심하면 현실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조차 게임의 내용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방의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타인과의 단절일 것이다.

개인 컴퓨터의 보급이 증가하고 그에

검색실 정보검색 취지무색 오락·채팅 소일 반성해야

며칠전 자료를 찾기위해 검색실을 찾았는데, 빈자리 없이 가득 찬 자리 때문에 그 자리에서 20분이나 기다리게 되었다. 하지만 좀처럼 일찍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어 한 번 자리를 돌려 보았을 때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허나같이 채팅, 인터넷의 오락·음란 사이트 구경까지 그 많은 좌석 중에 두 세명을 제외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 몇시간씩이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니 정말 할 말이 없었다.

긴 겨울방학이 끝난 후 학교에는 '도서관 검색실'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생겨 났었다. 이때 '우리 학교도 이러한 것을 다 만드는 구나' 하며 의아해했던 생각이 난다. 그러면 왜 개월이 지난 지금, 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검색실 문을 열면 항상 가득찬 자리와 혹시 빈자리 없나 서성거리는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접한다. 그리고 정작 자료를 찾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기보다 개인의 오락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공간시간에 할 일이 없어 이곳에 왔는데...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것이 단 한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학우들의 생각 또한 그렇기 쉽고 그 가운데 원래의 취지를 상실해 가는 검색실의 모습과 우리 각자의 모습을 바라 볼 수 있어야겠다.

김수정 (인문과학대 인문학부)



동악광장

다양한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Item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with prices.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Item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with prices.

따라 이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간의 유대가 많이 약화되었다. 앞으로 모든 업무가 타인과의 접촉없이 가능해질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아예 인간사이의 단절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생겨난 게임방은 다른 방문화와는 달리 개인을 위한 공간이며 인터넷을 통해 타인과 동시에 게임을 즐긴다고는 하지만 현실과 분리된 가상세계에서의 인간관계일 뿐이다. 그렇다고 게임방의 확산을 단순하게 컴퓨터 시대의 흐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서양의 개인주의 사상과는 달리 공동체를 중시해온 우리나라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놀이문화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생의 놀이문화에는 대체문화가 없다. 단순하게 게임방의 문제점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놀이문화의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시간간의 애절과 유대를 도모한다면 더 이상 게임방이 대학문화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김수예(정보산업대 정보산업학부)

평론

부드러운 감옥(詩)-이경임

80년대의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해 이제 막 빛이 보이려는 찰나,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라는 또 다른 터널 속으로 깊고도 지루한 여행을 시작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세기말이라는 강박관념은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는 꿈의 사형선고처럼 들려오는 요즘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꿈을 노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시인이 있어 관심을 끈다.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부드러운 감옥'이 입선. 시단에 데뷔한 이경임의 첫 시집 '부드러운 감옥'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직 꿈은 건재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준다.

얕장구 하나 켜지지 않은 /세기말의 지루한 터널 속을/나는 터벅터벅 걸어간다(- '숨쉬는 어둠') 이경임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얼핏 보기에 비극적이다.

그녀에게 있어 현실은 '세기말의 지루한 터널 속'처럼 어둡고 음침한 곳이다. 이러한 발견은 구약성서의 요나서에 나오는 너느웨를 현실로 재생시킨다. 슬픔으로 동글게 솟아오른 내 등 위로

오수길 박찬정 (수교4·총학생회 문화국장) "인권지기가 되겠습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죠. 인권영화제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고자 하는 당연한 움직임일 뿐이에요."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라는 주제 아래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본교에서 개최되는 인권영화제를 준비 중인 총학생회 박찬정(수교4) 문화국장은 이렇게 인권영화제를 전했다. 작년도도 인권영화제가 무산돼 몹시 안타까웠다는 그는 올해는 반드시 알차게 치러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너느웨의 불빛들이 쏟아진다(- '너느웨를 걷는 낙타') 그녀에게 있어 현실은 환락과 타락의 도시로 묘사되는 너느웨이다. 그리고 그 곳에서 '나'는 낙타처럼 쓸쓸하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쓸쓸함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쓸쓸함이야말로 그녀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그녀의 시에서는 씨앗을 심고 꽃이 피어 오르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씨앗들도 꽃을 피우기 위해선 감옥살이를 한다 참, 몽글하다(- '나팔을 연주하는 감옥') 이른 아침 커다란 나팔을 불어대는 나팔꽃도 짧은 아침의 영광을 위해선 길고도 외로운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경임의 시에서 어둠, 터널 등의 이미지는 외부 세계와의 차단이라는 점에서 감옥의 이미지와 연결되는데, 감옥은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닌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기도 하다. 감옥을 바라보

고 있다고 한다. 오, 깃털처럼 가벼운/죽음에 매달려/다시 지상으로 땃줄을 묶는/삶. 무거운 꽃(- '민들레')시인에게 죽음(어둠, 감옥, 잠과 꿈꾸는 행위)은 깃털처럼 가볍다. 하지만 그 가벼운 삶에 다시 땃줄을 묶는 약속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인에게 삶과 죽음은 하나의 '전체'일 때 진정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는 다시 삶을 꿈꾸는 곳으로 뻗어나가 있다. 시인 이경임은 타락 속에서 생명력의 발견, 이와 함께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림모전 누르는 여자', '비누 여자', '늙은 장녀를 위하여', '고드름 속의 여자' 등 시집 전체에 걸쳐 강조되는 여성의 이미지는 각박한 세상에 남성보다 여성의 고통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분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김동완(문과대 국어국문학부)



동악광장

수고했어요. 앞으로 모두에게 좋은 일 생길 거 같 바라요. -96별

열심히 하시다

△전시작품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해를 준비하는 지교과 97 흥민이와 주희야! 열심히 해라. 내년의 모습 이들의 어깨에 달려있어. -너희들의 영원한 건기가 △31대 총학생회를 건설하고자 결의하신 홍준선배님, 나현선배님, 힘내세요.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어느 후배 △임은희, 함은희 31대 수학교육과 학생회 잘 이끌어 나가게 되길 바라요. -수교97들

알립니다

△'98 행정학도의 밤'과 '총동창회'가 함께 열립니다. 일시:98년 11월 20일, 오후 6시 장소:명동 세종호텔 4층(해금강) -서영이가 △제11대 상경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그리고...

△사범대 선운분 사무장님 죄송해요. 제발 절 이해주세요. 미안해요. -놀구실은 킴 △다환과 식당에 항의한다. 극중 제대로 끊여라. -위풍으로 괴로워하는 학우가

은방길

추하합니다

△순명이가 12월 3일에 생일이래요. △영상 정기 전시회 축하드립니다. △11월 25일은 재화와 지현이가 사귀지 2백일 되는 날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화랑선무부 에너지이져 성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사랑한다. 죽을때까지. -화랑 이쁜이 △소야 소야(시림 18기 김혜영) 생일 11월 14일 무지무지 축하해. 음메~허봐. -서영이가 △제11대 상경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동규 선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셀일동 △법정대 장병우·하주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1년간 열심히 하십시오. -김기태 △애경아 생일 축하해. -사자머리 △16일이 해리 생일이던가. 해리아 생일 축하해. -서영·속향 △수연·정훈아! 대학원 합격 축하해. 열심히 해라!! -우니개 △Phi 졸업하시는 선배님 축하합니다. 졸업생 환영회에서 뽕을 뽕쥬. -Newsweek

수고하셨습니다

△Quest 여러분 공연하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재일 이쁜이&TIME 사 △불교학생회 33대 임원단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20일 고별 발표회 락, 언, 진, 현, 경 수고하셨습니다. -Newsweek

열심히 하시다

△승준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5인의 여녀들

△조경인 여러분 힘들죠? 헉! 헉! 우리 한게임 더해?

△불회의 빌바다야 되어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19기 회장 문혜

알립니다

△해원 스님! 스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꾀꾀 연락주세요. 국문과 확보통으로 꾀꾀 부탁드립니다. △11월 21일 Newsweek졸업생환송회 한데요. -長

그리고...

△재한아!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HAPPY TOGETHER △재영이 너무 슬퍼 하지만. 때되면 지작은 다 만나게 되는 거야. -Joo ssi △11·10 행정이의 지도법이 무사히,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5인의 여녀들'이 빌어 줄게요. -5인의 여녀들